

오늘의 기사관

오늘 (7일)
▶광주·전남 기관단체장 조찬간담회=오전 7시30분 광주 센트럴관광호텔.
▶제 9회 무안군 송달해 전남도 게이브틀대회=오전 8시50분 목포대.
▶2006 아시안 전통식품 세계화 전략 한·중·일 공동 국제심포지엄=오전 11시 전남대 여수 캠퍼스 국제회의실. 신동환 전북대 식품공학과 교수가 '한국 전통식품의 세계화전략', 송재철 울산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세계화를 위한 향도·전통식품의 개발과 상품화 전략', 강성국·김현진·한경식 목포대 식품공학과 교수가 '별지역적 특색의 협업강화 효과' 등에 대해 발표.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여수지대 발대 18주년 기념 전국 행사=오전 11시30분 여수시 종합운동장. 전국 교통봉사대원 등 300여명 참석 예정.

2006 아시안 전통식품 세계화 전략 국제심포지엄

오전 11시 전남대 여수 캠퍼스 국제회의실

▶제 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개막식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살기좋은 지역, 우리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12일까지 개최. 광주·전남에서 각 16개 부스와 공동혁신도시관 4개 부스를 마련. 전시, 체험관(미래주택·3D입체영상·항공우주·전통문화)운영. 지역혁신 6대 분야 43건의 성공사례 발표. 지역혁신 우수리더 발표. 국내외 컨퍼런스 개최. 개막축하공연 오후 7시 광주 상무시민공원.
▶우리술 산업 활성화 토론회=오후 4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가 '우리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정철 벤처정보대학원 교수가 '주류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주제 발표.
(8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미나=오전 10시 5·18 기념문화센터. 박동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홍보팀장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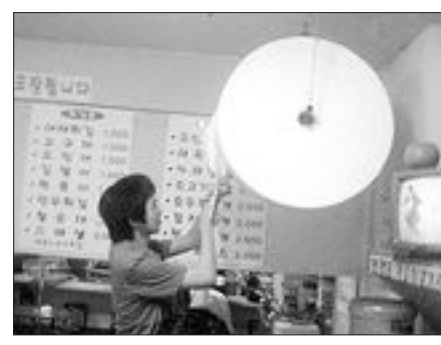
에 대해 주제 발표. 김종식 안도군수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사례' 발표.
▶전남도 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미당'=오전 10시 고흥군 팔영체육관. 전남도 22개 시·군 부녀회원 등 1천여명 참석예정.
▶여순사건 현지 설명회=오전 11시 여수시청 회의실.
▶화요예술무대 비발디의 사계=7일(화) 오후 7시30분 광주 문예회관 소극장.
▶제 19회 광주벨칸토아카데미 정기연주회=8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2006 오페라 나비부인=7~10일 오후 7시 순천문예회관 대극장.
▶(사)한국복지정보통신협회 광주·전남지부 영동동호회 제 1회 회원사진전=11일까지 KT광주정보통신센터 1층 갤러리.

오늘의 유머

■불량 미누라
아버지의 임종을 보기 위해 달려 앉아있는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지난 날을 회고하며 유언을 했다.
유언이 끝나자 힘없는 목소리로, "애들아, 너희 엄마의 음식 솜씨를 따라갈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단다" 지금도 너희 엄마가 만드는 부침개 냄새가 나는구나. 죽기전에 마지막으로 맛을 봐야 편하 눈을 감겠다. 아들이 가서 부침개 한쪽만 갖다 주겠니?"라고 했다.
잠시후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힘없이 물었다.
"왜 빈손이니?",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아버지 드릴 건 없고 내일 문상 오시는 손님을 대접할 것 밖에 없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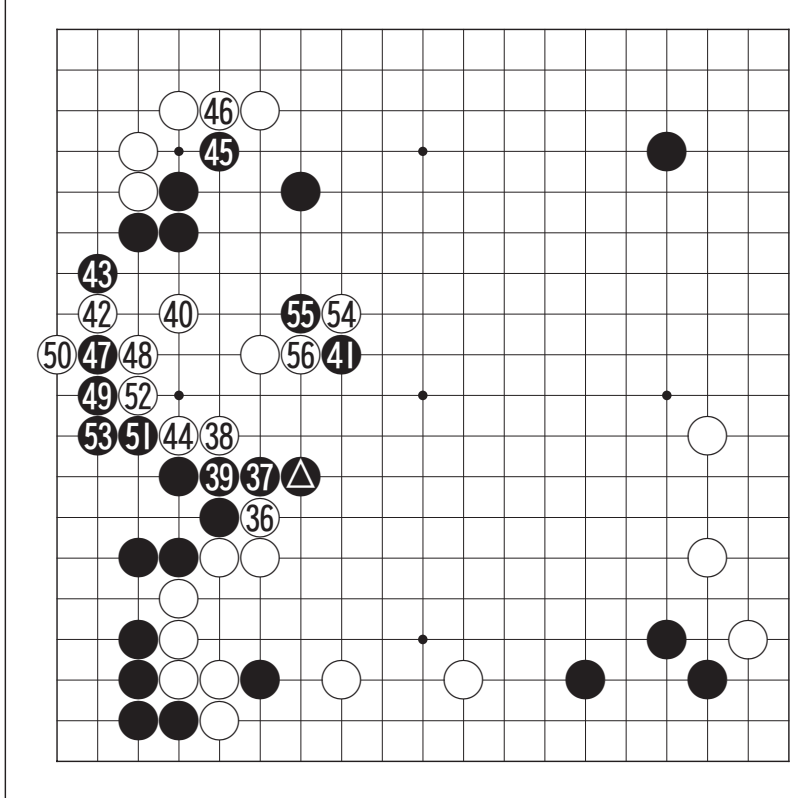
■휴식이 필요해요
예쁘게 생긴 레스토랑 계산담당 여직원이 휴가를 달라고 했다.
"전 긴 휴식이 필요해요. 제 미모가 한물간 것 같아 걱정이예요."
사장이 "왜 그렇게 생각하지?" 하고 묻자, 그녀 율 "남자 손님들이 거스름돈을 쟁기기 시작했거든요."

■누구 휴대전화?
한 사우나 라카룸에서 모두 옷 갈아입고라 정신이 없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옆에 있던 한 아저씨가 자연스럽게 받았다. 휴대전화 성능이 워낙 좋아 옆에 있어도 상대방 목소리가 짜릿짜릿 울려 통화 내용을 들을수 있었다.
전화기 : 아빠, 나 MP3 사도 돼?
아저씨 : 어, 그래.
전화기 : 아빠, 나 새로 나온 휴대전화 사도 돼?
아저씨 : 그럼.
전화기 : 아빠, 나 TV 사도 돼?
옆에서 듣기에도 TV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아저씨 :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
부탁을 다 들어주고 휴대전화를 끊은 아저씨는 주위를 둘러번거려며 외쳤다.
"이 휴대전화 주인 누구세요!"



<디자이너사이드>
<화장지 맞아?>

■아들 낳아줘, 이왕이면
어떤 할아버지가 자식들이 준 용돈을 모아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필요한 돈을 바꾸려고 은행에 갔다.
할아버지가 은행창구에서 여직원에게 "아가씨 돈 좀 바꿔 줘요" 라고 했더니, 여직원이 "애나(연화) 드릴까요? 딸나(달라) 드릴까요?"라고 물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할아버지는 '나이도 젊은 아가씨가 참 당당하네' 라고 생각했다.
한참을 생각한 할아버지, "이왕이면 아들 낳아 줘."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지역비대위
그럴 듯한 惡手 3보(36~56)
白 유병수 5단 <포스코>
黑 박명수 5단 <농협>
흑이 좌변을 지키는데 연연하지 않고 흑 ▲로 요격을 점령해 백을 압박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호방한 발상이다. 이렇게 되면 백도 기호지세다. 돌의 체면도 있다. 그래서 40로 짓쳐 들어간 것은 당연하며 흑도 41로 모자를 띄워 일찌기 승부처를 맞이하게 되었다.
백 42로 뛰고 44로 막아가자 어느 정도 사는 모양을 갖춰가고 있다. 백

바둑소식
유창혁, 맥심커피매 8강 입성
유창혁 9단이 제8회 맥심커피매 입신최강전 16강전에서 황원준 9단을 물리치고 8강에 올랐다.
유 9단은 최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황 9단과의 16강전 대국에서 247수 끝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유 9단은 8강전에서 박영훈 9단과 4강 티켓을 놓고 맞대결을 벌이게 된다.
8강에 선착한 기사는 6일 현재 유 9단과 박 9단을 비롯해 서승욱·최규병·장주우 9단 등 5명. 이세돌-안준영, 조한승-하찬석, 박정삼-최명훈 9단이 남은 8강 티켓 3장을 두고 격돌을 벌인다.
입신(9단)에게만 참가자격이 주어지는 이번 대회는 38명이 참가했다면, 우승 상금은 2천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

뉴스퀴즈

37.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지이언츠가 소속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 선수와 오는 2010년까지 4년 장기 계약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체적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에 입단한 '고질라' 마쓰이 히데키를 계약의 잣대로 삼았거나 타이론 우즈 주니치 드래곤즈·연봉 5억 엔을 넘어서는 대우를 해줬다는 말도 있어 4년간 최대 30억엔 인원이 될 것이라는 계산도 나옵니다.
요미우리 지이언츠의 4번 타자도 올 시즌 41홈런, 108타점을 한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이승엽 ② 이종범 ③ 최희섭 ④ 구대성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올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진공정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처변호비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7일(음 9월 17일 庚子)

子 36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신사가 발생한다. 48년생 구사가 괴롭거나 큰 일은 아니다. 60년생 외부의 일이 가정까지 번진다. 72년생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나 나중은 편해라. 84년생 착실한 신사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3, 45
丑 37년생 협조하는 있으나 결과는 반반이다. 49년생 삼사일언하면 미움은 없으리라. 61년생 옛 감정은 빨리 털어버려라. 73년생 말다툼이 송사로 비화 될 수도 있다. 85년생 예언이 불언하다. 행운의 숫자 : 05, 26
寅 38년생 초 심 사람조심. 50년생 미운 사람과 좋은 사람이 생긴다. 62년생 아늑한 보금자리나 불편한 사람이 같이 있다. 74년생 자신과 가정, 가정과 직장사이 불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1, 35
卯 39년생 협조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일을 추진해준다. 51년생 직장을 포로로 잡은 적이 큰 상이 있을 수 있다. 63년생 의외의 돈은 쉽게 사라진다. 75년생 독신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8, 32
辰 40년생 과도가 높으니 대고가 예상된다. 52년생 하루가 평안하니 주위를 둘러보라. 64년생 자녀가 떨어져 살아야 할 경우가 생기지만 좋은 일이다. 76년생 고개를 숙여서 맘을 한번 살피고라. 행운의 숫자 : 04, 45
巳 41년생 좋은 협력자를 만나 큰 도움을 받는다. 53년생 신사나 헛된 문서에 속심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65년생 과묵한 없으면 결과는 좋으리라. 77년생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온다. 행운의 숫자 : 24, 25
午 42년생 가정의 힘은 쇠약에서 나오니 부엌이 건설해야 한다. 54년생 방종됨은 여자가 만들어야 효과가 있다. 66년생 가계는 국가 경제도 통한다. 78년생 남을 높이면 자신도 높아진다. 행운의 숫자 : 08, 37
未 43년생 집안은 평안하고 집 밖은 시끄럽다. 55년생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가지 못하니 선택을 잘해야 실이 적어진다. 67년생 이웃을 살피고 보라. 79년생 이성 보다 친구를 만나야 득제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9, 36
申 44년생 욕심을 화를 부르는 소말대살 하지마라. 56년생 모든 일에 불만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처신을 잘하라. 68년생 친인척의 변동으로 격정이 생길 수도 있다. 80년생 계획한 일은 잘 이루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7, 03
酉 45년생 마음의 고통은 있으나 가정은 평안하다. 57년생 허황된 문서만 조심하면 마수는 없다. 69년생 부부사이 이헤있는 대화와 사랑신 자녀를 살피고라. 81년생 세상에 극복되지 않는 어려움은 없다. 행운의 숫자 : 21, 25
戌 46년생 가득 찬 창고도 모두 내 것은 아니다. 58년생 수하인과의 동행은 절대 금하라. 70년생 간장과 위장의 평안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82년생 새 문서를 친구가 가져오나 검토는 자세하게 해야 하라. 행운의 숫자 : 14, 38
亥 47년생 어려워 보여도 쉽게 해결된다. 59년생 정은 있으나 만나지 못하고 안타까운 뿐이로다. 71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내실 있게 결정 난다. 83년생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끝까지 속이 꼭 찜다. 행운의 숫자 : 17, 29

굿모닝 잉글리쉬 <770> 오하이오 니혼고 <770> 니하오 풍구워 <488> 한자 이야기 <388>

against my better judgment
본의 아니게
A:I've tried to be kind to him against my better judgment.
B:What do you mean by that? Didn't you know he was not reliable?
A:Yes, I did. But I wanted to give him another chance.
B:Now you know he won't change.
A:난 좋길 그에게 잘 대해 주었는데, 본의 아니게 말이야.
B:그게 무슨 말이니? 그녀석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니?
A:응,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한 번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지.
B:이제는 알고 있는지? 그녀석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야.
against my better judgment : 본의 아니게
try to ~ : ~하려고 애쓰다
reliable = trustworthy, dependable

どんなジャンルが好きなんですか?
어떤 장르를 좋아합니까?
A:日本の歌手の歌のCDで、何かお聴(す)めはありませんか?
B:どんなジャンルが好きなんですか?
A:そうですね。リズム、アンド、ブルス系(けい)なんかがいいですね。
B:それじゃ、宇多田(うただ)ヒカルが、'イチオシ'ですよ。何と言っても、今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ら。
A:일본가수의 노래 CD에서 뭐가 추천할 것은 없습니까?
B:어떤 장르를 좋아합니까?
A:글쎄요. 리듬앤블루스계통 같은 것이 좋습니다.
B:그럼 우타다히카루가 '최고'예요. 뭐니뭐니해도 지금 가장 인기가 있으니까요.
お聴(す)め : 추천, 권유
リズム、アンド、ブルス系(けい) : 리듬앤블루스 계통
何(なん)と言(い)っても : 뭐라해도, 뭐니뭐니해도
それじゃ : 그럼

差点儿没
하마터면 ~못할 뻔하다
A:您差点儿没摔吗?
B:差点儿没摔, 幸亏有人扶了我一把。
B:差点儿没摔, 幸亏有人扶了我一把。
A:为什么?
B:她两天身体不好, 感冒挺厉害。
A:没事, 您赶紧休息休息吧。
B:谢谢, 您真好。
A:没事, 您赶紧休息休息吧。
B:谢谢, 您真好。
差点儿没 : 하마터면 ~못할 뻔하다
幸亏 : 다행히

貢女(공녀)
바칠 공, 여자녀
공녀(貢女)는 고려에서 원(元)나라에 조공품(朝貢品)으로 바친 여성이다. '용감한 전사(戰士)'라는 뜻의 '몽골'군대는 기마병을 앞세워 세계정복에 나서, 1215년에는 북경(北京)을 정복하고 황하이북을 몽골 땅으로 만들었다. 이어 1231년에 3만여명의 몽골군이 고려를 침략하여 30여 년간 6회에 걸친 침략전쟁을 일으킨 끝에 1270년 고려의 완전항복을 받아냈다. 그 사이 몽골은 고려에서 약탈·강박·살인을 일삼았으며, 여자와 어린이를 포로로 끌고 갔다.
특히 몽골군은 고려의 여성을 공물(貢物)로 요구하였다. 고려는 이 요구를 거역할 수 없어 처음에는 과부(寡婦)와 역적(逆賊)의 아내, 또는 승려의 딸 등을 강제로 뽑아 보냈다. 그러나 차츰 여염집 여성과 양가(良家)의 여성, 그리고 심지어는 귀족 여성도 바치게 되었다. 공녀를 피하기 위해서 일찍 '사위'를 들이는 것' 즉, 딸의 나이가 12~13세만 되면 혼인을 시키는 조혼(早婚)의 풍습이 유행하였다. 그 중 선천 수령 기자오(奇子敖)의 딸은 뛰어난 미모로 원의 순제에게 사랑을 받아 제2황후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후 고려의 벼슬아치들은 딸을 공녀로 원나라에 보내 출세하려고 앞을 다투기도 하였다.